

1.

2017학년도

인문계열 1회차 해설

[1회차 공통문항]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이희진, 『정보기술은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13~15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가>는 '정보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시간 개념을 기술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밤과 낮이라는 자연적 시간 차이조차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그 사례로 세계적인 시계업체 스와치가 스위스 빌(Biel) 시간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시간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하는 빌 표준시(BMT: Biel Mean Time)를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의 데이터양에서 착상한 이 시간을 전세계인이 공유하게 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가 전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각기 차이가 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빌 표준시는 전세계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제시문 <나> : 토마스 데 파도바, 『라이프니츠, 뉴턴 그리고 시간의 발명』
(박규호 옮김, 은행나무, 2016년, 151~152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나>는 근대적 시간 개념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시계가 출현하게 되어, 하루가 24시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시간은 인간 모두에게 해당하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게다가 분 단위까지 측정하는 시계가 출현한다는 것은 근대적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즉 청교도들에게 시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재화이기 때문에 단 일 분, 일 초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강박 관념을 낳게 되며, 자명종이나 시간표 등 규칙적인 생활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시간 개념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도시인에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감각을 낳게 되었다.

제시문 <다> : 한병철, 『시간의 향기』
(문학과지성사, 2013년, 46~66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즉 근대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어지는 시기의 '절대적 시간' 개념을 시간의 '가속화'와 '탈시간화'로 설명하고 있다. 철도, 비행기 등 근대적 기계문명이 공간의 축소, 시간의 단축을 의미했다면, 그 과학문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인터넷은 이윽고 물리적 차원의 공간 소멸을 가져왔다. 또한 전세계인이 단일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시간 개념의 상실, 탈시간화를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가속화와 탈시간화를 물리적 운동과 인간적 경험을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근대 문명의 수렴 형태는 인류에게 속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미지의 영역이 개척되고,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상으로는 시간 감각의 교란이 생겨 '경험'으로서 축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개념적으로 시작과 변화, 끝과 같은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없기에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경험으로 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절대 시간' 개념에 저항하여, 개인마다 다른 시간, 개인마다 다른 서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1회차 공통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출제 의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쫓기는 느낌을 받는다면 왜 그런 것일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일까? 과거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시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문들을 제시하여, 제시문 간의 내적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써, 답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논제의 구성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하시오. (단, <참고문>을 활용할 것) (1,000±100자)

제시문 <가>, <나>, <다>, <참고문>은 모두 '시간' 개념에 대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각각 정보화 사회와 근대의 '절대 시간'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다>와 <참고문>은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제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후,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해 보라는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정보화 시대와 근대적 '절대 시간'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후, 상대적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한 절대적 시간 개념을 비판하라는 것이다. 문제 도출의 방향은 비교적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방향 자체를 혼동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도출하여 자신의 이해된 말로 풀이하기는 다소 난위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 시간'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적 보편시는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흘러간다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하나의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정교한 시간 관리가 중시되며, 그렇기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부가적이기는 하나, <가>와 <나>는 새로운 시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논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다.

<가>와 <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보편시로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고, <가>는 인터넷 시간으로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보편시는 절대 시간이기도 하나 여전히 자정과 정오를 가진다, 즉 낮과 밤이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자전에 따르는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간은 이러한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리듬에 따르지 않는다. 또한 보편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반해,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용하여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시간이다.

<다> 지문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자연계의 시간이 관찰자의 위치나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의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와 <참고문>의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적 시간 개념은 비판될 수 있다. 우선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시간의 상대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가>, <나>, <다>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 식의 <나>의 시간과 정보화 시대 <가>의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경험치가 다른 <다>의 시간이 모두 공존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다.

[1회차 공통문항] 채점기준

답안 구성요소

①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 시간'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적 보편시는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흘러간다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하나의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정교한 시간 관리가 중시되며, 그렇기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부가적이기는 하나, <가>와 <나>는 새로운 시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논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다.

② <가>와 <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보편시로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고, <가>는 인터넷 시간으로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보편시는 절대 시간이기도 하나 여전히 자정과 정오를 가진다, 즉 낮과 밤이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자전에 따르는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간은 이러한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리듬에 따르지 않는다. 또한 보편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반해,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용하여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시간이다.

③ <다>와 <참고문>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있는가?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④ <다> 저자의 입장에서 '절대 시간'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가?

<다>와 <참고문>의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적 시간 개념은 비판될 수 있다. 우선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국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1회차 공통문항] 예시 답안

예시 답안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시간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나>에서 말하는 시간은 근대적 시간이다. 분 단위를 측정하는 정교한 시계가 개발됨으로써 노동 시간을 비롯한 인간 생활이 시간에 얽매이고 더욱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가>는 스와치 타임을 예로 들어, 정보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시간, 즉 전 세계인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점은 절대 시간, 시간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이며, 새로운 시간 체계가 나타난 시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나>가 일출과 일몰의 자연적 시간인데 비해, <가>는 그것마저도 초월하여 전세계인 모든 장소의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다.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의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시간의 상대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가>, <나>, <다>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 식의 <나>의 시간과 정보화 시대 <가>의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경험치가 다른 <다>의 시간이 모두 공존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다.

[1회차 계열문항]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기형도, 「늙은 사람」(『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가>에 제시된 「늙은 사람」은 요절한 시인 기형도의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 실린 작품이다. 기형도 시 세계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문제화하였다는 점이다. <가>에 제시된 '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노인'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 형상화한 시이다. 시적 화자 '나'는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채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는 '늙은 사람' 곧 '노인'을, '틈입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늙은 사람'이 시적 화자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까닭은, '짧은 바지'와 '벌어진 입', '허영게 센 정신' 등이 시사하듯,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데 있다. 이런 노인의 이미지는 '늙은 사람'이 '탐욕스런 눈빛'으로 시적 '나'의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과 대비된다. 이와 같이 '늙은 사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태도는 단호하다. '나'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틈입'을 허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나'의 세계에는 이미 '그'가 추방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세계 또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나'에게 '늙은 사람'은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4연의 내용이 시사하듯, 역설적으로 '나'와 '늙은 사람'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그를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은 너무도 쉽게 가까이 내 곁에 있음을 '나'는 깨닫는다. 이런 점에서 '늙은 사람'은 죽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 '나'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늙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혐오의 시선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제시문 <나> : 키케로,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 (정영훈 편역, 소울메이트, 2016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나>는 '노년'과 '죽음' 두 개의 화두를 성찰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 C.)의 『노년에 관하여』에서 발췌 구성한 글이다. <나>에서는 '노년' 혹은 '늙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나>는 노년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늙는다고 해서 모두 비참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노년의 장점이 <나>에 서술된다. 노인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 분별력과 이성을 갖추었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라는 것,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걸맞는 조화로운 것이라는 점 등을 노년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 : 강상중, 고민하는 힘 (이경덕 역, 사계절, 2009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다>는 강상중의 『고민하는 힘』 가운데 「늙어서 '최강'이 되라」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노인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글이다. <다>에 따르면, 노인은 오늘날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지만,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교란하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가 구성된 과거와 달리, 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분별력' 있는 존재일 수 없다. 오히려 '분별없는' 노인이 늘어난 까닭에 노인은 '젊음'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다>의 저자는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다>의 저자는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회차 계열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출제 의도

1회차 인문계열 논술의 주제는 '노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일컬어 '고령화 사회'라 한다. 그리고 멀지 않아 '고령화'의 단계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늘어났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그에 걸맞게 높아지진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여전히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젊음, 유용성, 생산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회 구조가 낳은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의식 또한 그와 같은 불균형한 상황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 거 들고 있다. 노인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아니면 '분별력' 있는 '원숙'한 지혜의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이 과연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로 나아가는 오늘날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1회차 인문계열 논술 제시문은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의미'에 대해 성찰적 접근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문학, 철학, 사회 영역의 텍스트 등에서 선별하였다. 논제는 '노년'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적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까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논제의 구성

논제는 '노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두 개의 대조되는 통념을 보여주는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의 시대에서 '노인'이 갖는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통념적 인식을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제는 다음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에 대해 비교하십시오.

둘째,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가>와 <나>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통념을 각각 비판하십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단계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셋째, <다>의 논지를 파악한다.

넷째,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을 비판한다.

[1회차 계열문항] 채점기준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논제가 요구하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의 파악

둘째,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셋째, <다>의 논지를 파악

넷째, <다>의 논지에 근거한 <가>와 <나>의 '노년' 인식에 대한 비판

■ 이 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①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

(1) <가>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노년'에 대한 인식

- 시적 화자 '나'는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채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는 '늙은 사람' 곧 '노인'을 '틈입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봄
- 시적 화자는, '짧은 바지'와 '벌어진 입', '허영게 센 정신' 등이 시사하듯, '늙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
- '탐욕스런 눈빛'으로 '그(=늙은 사람)'가 응시하는 시적 화자 '나'의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과 대비됨
- 시적 화자에게 '늙은 사람'은 '죽음'의 의미로 인식됨
- 4연의 내용이 시사하듯, 역설적으로 '나'와 '늙은 사람'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음. 그를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은 너무도 쉽게 가까이 내 곁에 있음을 '나'는 깨달음. 따라서 죽음의 표상인 '늙은 사람'은 '나'의 내면을 투명한 존재.

(2)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

- 노년은 모두 비참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
-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
- 노년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추었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
-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걸맞은 조화로운 원숙한 존재

②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1) 공통점

-<가>와 <나>는 노년을 문제화하고 있다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는 모두 노년을 죽음을 앞 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2) 차이점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는 노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 <가>의 시적 화자가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나>의 저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의 시적 화자 '나'는 '늙은 사람'을 혐오의 시선으로 응시한다.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세계에 침을 뱉'으며 그의 '틈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노인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

-<나>의 저자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며 그들의 장점을 서술하고 있다. <나>에 따르면 노인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춘 존재로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곧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맞는 조화로운 것이라 하면서 늙는 것이 비참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다>의 논지를 파악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존재 의미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노인은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다.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가 구성된 과거와 달리, 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분별력' 있는 존재일 수 없다. 오히려 '분별없는' 노인이 늘어난 까닭에 노인은 '젊음'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다>에서는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④ <다>의 논지에 근거한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인식 비판

(1) <다>의 논지에 바탕한 <가>의 시적 화자가 보이는 노년 인식 비판

<다>에서는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은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소외된 주변부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규제'에서 벗어나 무한한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교란하는 힘'을 지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저자 자신 '노년'에 대하여 '쇠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가>의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더 이상 육체적·정신적으로 '쇠퇴'한 혐오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2) <다>의 논지에 바탕한 <나>의 저자가 보이는 노년 인식 비판

또한 <다>에서 '분별없는' 노인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나>의 저자가 예찬하고 것처럼 노인은 '분별력'과 '지혜'로써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원숙'한 존재인 것만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같이 노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거나 <나>와 같이 '분별력'과 '지혜'를 지닌 권위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두 가지 정형화된 통념이라 비판할 수 있다.

[1회차 계열문항] 예시 답안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노년을 공히 죽음을 목적에 둔 시기로 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 <가>의 시적 화자는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는 노인을 혐오의 시선으로 응시한다.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틈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절대적 거리를 둔다. 이와 달리 <나>의 저자는 노인들의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노인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춘 원숙한 존재로 국가를 지탱하는 원로이다. 따라서 노인의 죽음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조화로운 것이기에 늙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고 <나>의 저자는 주장한다.

<다>는 고령화 시대 노년의 의미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노인은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다. 그러나 '분별 없는' 노인의 수가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 중심의 '젊음'에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이 주변부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규제'에서 벗어나 무한한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교란하는 힘'을 지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다>의 논지에서 볼 때, <가>의 시적 화자의 인식처럼 노인은 더 이상 육체적·정신적으로 '쇠퇴'한 존재일 수만은 없다. 또한 <다>에서 '분별없는' 노인이 대량으로 존재하므로 노인이 과거처럼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나>의 저자가 예찬하듯 노인은 '분별력'과 '지혜'로써 공동체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원숙'한 존재도 아니다.

따라서 <가>와 같이 노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는 입장, <나>와 같이 '분별력'과 '지혜'를 지닌 권위의 존재로 보는 입장 모두 고령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두 가지 정형화된 통념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